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조광환**

〈목 차〉

머리말

I. 만석보의 개요 및 관련사료 검토

II. 조선 후기 만석보의 변천과정

III. 일제강점기의 만석보

IV. 만석보 유적지의 기념사업

V. 만석보 유적지의 향후 정비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고부농민봉기의 발단이 된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수리시설인 만석보(萬石湫)는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첫 도화선을 당긴 시설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은 기존의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新湫)인 만석보를 축조한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쌓게 하고, 가을에 수세를 받아 700여 섬을 착복하는 등 온갖 탐학한 행동을 다하였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894년 1월 10일, 마침내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였고 다음날 수탈의 상징이자 원성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1897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고부 군수 안길수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1898년 9월에 철거하였다. 그러나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다시 보를 보수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용산보라 칭하였고 실제로 그 보를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

해방 이후 만석보가 있던 이 역사적 장소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1973년에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87에 세운 '만석보유지정화기념비'가 세워져있다. 맞은편에는 1999년에 세운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가 있다.

현재 만석보유지비에서 서쪽 백산 방면으로 약 500m 정도 제방 길을 따라가면 정읍시에서 2000년 5월 11일에 건립한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다.

이곳이 아홉 번째 막은 보가 있었던 자리라는 촌로들의 고증과 일치하는 관련사료인 「全羅道古阜民亂始初」에서 언급한 구막보(九幕湫)가 바로 아홉막이보를 의미하므로 만석보의 자리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있는 만석보의 위치는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만석보, 고부, 조병갑,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동진강에 합류하는 곳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라는 표석만이 남아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수탈을 목적으로 축조하였기에 원한의 대상이 된 만석보는 고부농민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완전 훼파되지 않고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흔적을 1898년 9월에 철거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보를 보수하여 용산보라 칭하고 인근 경작지의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73년 5월 11일에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에서 정읍군에 건의하여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가 현 위치에 세워졌다.

그러나 만석보의 위치에 대한 논란은 만석보유지비 건립 당시부터 거론되었으며 이후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유적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논란이 되는 거듭되는 이유는 몇 안 되는 관련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이를 분석한 연구자들의 견해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만석보에 대한 사료인 『전봉준 공초』,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辨)』,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 장봉선의 『全琿準實記』등을 검토하고, 김상기의 『東學과 東學亂』,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 정창렬의 『古阜民亂의 研究』등 연구자들의 견해와 현지인들의 증언 등을 살펴보고 만석보의 실재와 위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만석보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화재 지정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여, 이를 통해 향후 만석보 유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I. 만석보의 개요 및 관련사료 검토

1. 만석보의 개요

만석보(萬石湫)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있는 수리시설로서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의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고부 지역 농민

들은 정읍천과 태인천 상류에 보(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독을 쌓고 냇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를 막아 이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에도 풍년이 들었다 하여 만석보 또는 예동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예동보(禮洞湫), 또는 광산보(光山湫)라 불렀다.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은 수탈의 목적으로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하류지점에 새로 신보를 축조하였는데 이를 통상 만석보라고 칭하였다. 조병갑은 축조과정에서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주인이 있는 산에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다가 사용했다.

계다가 보를 쌓은 첫해에는 수세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두락(一斗落)에 상답(上畓)은 두말(二斗), 하답은 한말(一斗) 씩을 받아 총 7백여 석을 횡령 착복하였다. 또 군민에게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강제로 세미(稅米)를 징수하여 사복을 채웠다.

1893년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흉년이 들자 40여 명의 농민들은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 수세(水稅) 감면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쫓겨났다. 1893년 12월에 60여 명의 농민들이 다시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 수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곧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그 이유는 고부군 농민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던 군수 조병갑이 1893년 11월 30일자로 익산 군수로 발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893년 11월 30일에 고부 군수로 새로 임명된 이근용(李根鎔)이 부임을 미루다가 12월 24일 다시 황해도 안악군수로 전임 발령되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신좌묵(申佐默)이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다음 날인 12월 25일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고, 12월 26일에 이규백(李圭白)이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역시 병을 핑계로 12월 26일 사직하고 말았다. 이날 이후 하금일(河肯一)·박희성(朴喜聖)·강인철(姜寅喆) 등이 차례로 고부 군수에 임명되었지만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이처럼 12월 한 달 사이에 고부 군수로 5명이 임명되었으나 모두 핑계를 대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관찰사 김문현이 조병갑을 고부 군수로 천거하자 조병갑은 1894년 1월 9일자로 다시 고부 군수로 임명되었다. 1894년 1월 10일, 마침내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였고 다음날 수탈의 상징이자 원성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만석보가 있던 이 역사적 장소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1973년에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87에 세운 ‘만석보유지정화기념비’가 있다. 맞은편에는 1999년에 세운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가 있다.

2019년에 만석대교와 신태인대교 사이에는 흙을 쌓아 만든 만석보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로를 따라 언덕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만석보 쉼터에서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와 만석보가 있던 동진강 상류 물줄기, 저 멀리 두승산과 천태산의 산줄기, 그리고 주변에 드넓게 펼쳐진 배들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 만석보 관련 사료 및 연구기록 검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만석보 위치 고증 및 재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 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이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 검토내용과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검토 내용

- 사료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음
- 당시 보가 하나였는지 두 개였는지 기록마다 차이가 있음
 - 보가 하나인 경우 : 동도문변(명례궁보), 전봉준실기(만석보 개축), 김상기(만석보 개축)

- 보가 두개인 경우 : 동학사(만석보와 팔왕보), 최현식(만석보와 만석보신보), 정창렬(만석보와 새로 쌓은 독)

□ 검토 의견

-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르므로,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문화재 지정 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그러나 이 자료에서 인용한 사료와 연구기록들을 검토해보면 ‘회의’에서 내린 검토내용이나 검토의견과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軍司馬)인 최영년(崔永年)이 저술한 『동도문변(東徒問辨)』¹⁾ 「고부기요변(古阜起擾辨)」에는 “갑오정월십일일, 음면수백이 明禮宮湫에 수세한 일로 모두 모여 연달아 소송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여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보아 명례궁보의 수세문제가 고부농민봉기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만석보의 존재나 개수를 파악할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직접 참여한 오지영이 1920년대 후반에 작성한 『동학사』 초고본과 1940년에 간행한 간행본 『동학사(東學史)』²⁾에서 “古阜民亂事件에 收稅米濫捧件이라고 하는 것은 古阜北面에 있는 萬石湫와 八王湫를 백성의 賦夫로서 防築을 하게하고 그 湫收稅는 畓每斗落에 租三斗式이라는 세를 거두어 고부군수 조병갑이 가져 私腹을 채우려 한 것이오.”라고 하여 만석보와 팔왕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0쪽.

2)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1936년에 간행되어 당시의 일을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장봉선은 『全琿準實記』에서 “郡內 배들坪(梨坪平野)은 有名한 平野로 泰仁, 井邑, 古阜三郡의 溪流가 中央으로 貫流하여 地元農民이 其上流에 築淤하고 灌漑에 引用함으로 此 平野는 旱水災가 無別한 關係上 淤名을 萬石淤라 하였다. 無義한 趙秉甲은 이 名目, 저 名目으로 民財를 膏取하고 例에 없는 淤稅라 名稱하여 農民 一戶當 五斗乃至十斗의 穀物을 抑徵다가 그 것도 不足던지 自費로 萬石淤(從前의 四五倍以上)를 改築貯水하니 水로 因하여 被害 甚多함은 물론이오 收稅라 稱하며, 淤內, 淤下를 不問하고 灌不漑 與否없이 每斗落 最高 五六斗 最下 二三斗의 穀物을 搾取하여 禮洞, 斗田, 白山 三處에 數千石式積置하였으므로 民怨이 滿天하였으니 時는 거금 四十三年 前 癸巳冬이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 글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고부지역 농민들이 강의 상류에 보를 쌓았고 그 보의 이름은 만석보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병갑은 이 만석보에서 보세를 징수하다가 더 욕심이 나 자신이 비용을 들여 종전의 보를 4~5배 이상의 크기로 개축하여 수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상기는 『東學과 東學亂』³⁾에서 “그리하여 계사년 봄에 東津江 上流에 있는 萬石淤가 파괴되었음을 기회로 인부 수만을 징방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蒙利畚 每斗落에 收稅로 평균 세말 가랑씩을 強徵하였다.”라고 하여 원래 있었던 보인 만석보가 1893년 봄에 파괴되자 고부 농민들을 동원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수세를 강제 징수했다는 것이다.

최현식은 『갑오동학혁명사』⁴⁾에서 “**배들평 농민들이 정읍천의 하류에 보를 막고 물을 대어 농사를 지어왔으니 부근의 동명(洞名)을 따서 예동보(禮洞淤)라 하였다.** 또 흑심한 가뭄에도 배들평만은 매년 풍년농

3)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4) 최현식, 1980, 『甲午東學革命史』, 신아출판사, 30쪽.

사를 지어왔음으로 일명(一名) 만석보(萬石湫)로 불리웠다. 그런데 조병갑은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그해 겨울 만석보의 아래에(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보(湫)를 높이 새로 막는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여 예동보를 일명 만석보라 하였으며 배들평 농민들이 정읍천 하류에 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병갑이 새로 막은 신보는 그 위치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하였다.

최현식은 이어 “그리고 날이 밝아서 한 부대는 마항시장으로 나와 배들농민들의 원성의 표적이 된 萬石湫의 신보를 허물고 예동(禮洞) 두전(斗田)에 쌓아 놓은 보세미를 농민들에 돌려주었다.”⁵⁾라고 하였다. 이는 만석보와 만석보 신보가 있었는데, 고부봉기과정에서 신보를 허물었다는 것이다.

김용덕은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瑋準』⁶⁾에서 “동학혁명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조병갑의 탐학 중에서도 만석보(萬石湫)수세(水稅)문제였다. 배들평야에서는 태인(泰仁)·정읍·고부 三군의 계류(溪流)가 중앙을 흐르고 있어 농민들이 상류에 축보(築湫)하여 이를 관개(灌溉)에 이용하므로 이 평야에는 한수해(旱水害)가 별로 없는 옥답(沃畝)이라 보명(湫名)을 만석보라 하였다. 조병갑은 자비로 종전의 五배 가량으로 만석보를 개축하고는”라고 하여 대체로 장도빈의 기록과 유사하다.

정창렬은 『古阜民亂의 研究』⁷⁾에서 “수세로 거두어 들인 양곡 1,400여 석을 몰수하고 진전에서 거둔 곡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萬石湫 밑에 새로 쌓은 독을 허물었다.”라고 하여 만석보가 있었고 그 밑에 새로 쌓은 독이 있었는데 고부농민봉기 당시 새로 쌓은 독을 허물었다고 기록하였다.

이상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오지영과 최현식, 정창렬 등은 보를 두 개

5) 최현식, 위의 책, 45쪽.

6)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瑋準』, 同學出版社, 110쪽.

7)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로 보았으며 장봉선과 김상기, 김용덕은 기존의 만석보가 있었으나 이를 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의에서는 검토의견으로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르므로”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토사료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사료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 사료에서 빠진 사료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이 남긴 1차 사료로 평가되는 ‘전봉준공초’이다.

전봉준은 공초⁸⁾에서 “민보(民湫) 아래에 보(淤)를 쌓고 녹정(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전봉준이 말하는 민보는 광산보를 의미하며 그 민보 아래에 보를 조병갑이 쌓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가 두 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II. 조선 후기 만석보의 변천과정

1. 구보(舊淤)의 축조

전봉준이 말한 민보(民湫)인 광산보(光山湫)는 일명 예동보. 또는 만석보라 불렸는데 내장산에서 발원한 정읍천과 초강천이 만나는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취수구는 이평면 팔선리 석정마을 부근이다.

조선 숙종 때 고부군 담내면 송산(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살던 현곡(玄谷) 김명(金溟)이 쌓았다고 전한다. 김명은 영상 유척기(兪拓基)의 천거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6쪽.

로 산림직(山林職)인 자의(諮義: 三司에 속하는 중앙관직으로 정사품) 벼슬에 나갔으나 1721년(경종 1)에 물러나와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김명은 스스로 호를 지어 현곡거사라 하였는데 이는 심오한 도리를 취한다는 뜻이었고, 사는 집은 만은당(晩隱堂)이라 하였으니, 일찍 관직에서 물러나지 못함을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다. 김명은 배들(梨坪)의 관개(灌漑)를 위하여 모천(茅川, 정읍천)에 광산보를 쌓았다.⁹⁾

광산보 축조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군수 김우현 홀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에 새겨진 비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소재지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지방도를 따라가면 우측에 예동 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진입로 광장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비각(碑閣)이 있다.

비각 안에는 2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 좌측에 있는 비가 ‘군수 김우현 홀민선정비’이다. 이 비는 1862년(철종 13) 5월에 건립한 비로, 비문은 서한풍이 짓고, 글씨는 유영원이 썼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의 동쪽 이십리 쯤을 이평이라 하는데, 이평은 곧 세 고을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다. 농토는 비록 비옥하지만, 물이 늘 고였다가 다시 흘러간다. 침수의 피해가 많은 곳이다. 지난 무술년 만은(晩隱) 김공(金公)이 지암(止菴) 권공(權公), 동리(同里) 이공(李公)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淤)를 쌓고 둑을 높여 물을 흐르게 했다. 덕분에 홍수를 피하고, 보 때문에 가뭄을 피하게 되어, 농민들은 즐겁게 경작하고 해마다 곡식이 잘 여물게 되었다.<이하 생략>¹⁰⁾

김명은 정읍시 이평면 연화동에서 1663년에 태어나 1739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의 비문에서 언급된 무술년은 1718년을 의미하니 광산보는 이때 시축(始築)된 것으로 보인다.

9)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梨坪面百年史』, 100쪽.

10) 위의 책, 184쪽.



〈도 1〉 만석보 심터에서 바라본 정읍천



〈도 2〉 광산보터(정읍시 이평면)



〈도 3〉 김명묘비(정읍시 이평면 팔선리)에 제방을 쌓았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2. 신보(新湫)의 축조

조병갑은 1892년(고종 29년) 1892년 4월 28일에 고부군수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수탈에 나섰다. 조병갑은 기존의 광산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다시 신보(新湫)를 막아 수세를 거둬들였는데 이 신보를 만석보라 하였다. 만석보 수세 문제에 관련하여 1894년 4월에 전라감영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고부민란의 시작점[全羅道古阜民亂始初]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국령(國令)을 칭탁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리기를, “크게 백성을 모아 구막보(九幕湫, 만석보)를 쌓아라.” 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라 이 보를 쌓았다.

전답이 수천 석이었는데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斗)를 거두어 수천 석이 된 것이다. 몰래 전운사(轉運使, 조필영)와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국세[王稅]를 내는 논이라도 기경(起耕)한 지 삼년 뒤에 세포(稅布)를 바치는 법인데, 올해 보를 쌓게 하고 조세 5두를 거두어 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온 읍(邑)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상소하였는데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란이 일어난 것인데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狀頭]이 전녹두(全綠斗)이다. 이 사람은 동학도에 도통해 조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두(狀頭)가 된 것이다.¹¹⁾

위의 보고서는 만석보 수세문제로 인하여 1894년(고종 31년, 甲午)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배들평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전봉준 또한 이에 대하여 공초¹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이 반드시 있는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概)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湊) 아래에 보(湊)를 쌓고 노력(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 진황지(陳荒地)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오, 하나는 부민(富民)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e-donghak.or.k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 정보 시스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6쪽.

에게 늑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늑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미(大同米)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은 추미(麤米)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요,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도 4〉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이와 같이 조병갑은 만석보 수세를 빌미로 1두락에 상답은 2두, 하답은 1두씩을 받아 무려 700여석을 거두어 예동·두전·백산에 등지에 쌓아 놓았다.

3. 만석보 파괴

1894년 1월 10일 밤,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인근 예동(禮洞)에 집결한 농민들이 대오를 갖추 말목장터로 옮겨왔다.¹³⁾ 이 자리에는 사전에 통문을 받고 각 마을에서 봉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많은 농민들이 있었다. 전봉준은 집결한 군중 앞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자행한 그간의 학정과 수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서 함께 봉기할 것을 역설하였다.

전봉준은 연설을 마친 후 인근 대밭에서 죽창을 만들어 무장을 시킨 뒤 2개진으로 나누어 1진은 전봉준과 정익서가 인솔하여 전라도 고부군 북부면(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의 옛 지명) 운학리(雲鶴里)를 거쳐 고부군 뒷모실 방죽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2진은 김도삼이 인솔하여 전라도 고부군 담내면(灣內面) 산매리(山梅里)와 도계리(道溪里)를 거쳐 뒷모실 방죽 끝에서 전봉준 부대와 합세하여 고부관아를 일시에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이미 조병갑은 도망치고 없었다. 이로써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고부농민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창고에 쌓인 곡식을 인근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농민들을 풀어주었다. 날이

13) 『석남역사』에는 1월 8일 장날에 말목장터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석남역사』는 박문규가 73세가 되던 1951년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국한문혼용체 필사본 문서이다. 당시 고부농민봉기와 황토현 전투 등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쓴 회고이기 때문에 날짜 등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파계생의 「전라도고부민요일기」는 줄포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수집하여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있다고 본다. 1894년 5월 31일 재부산 총영사 무로타 요시부미가 외무성 차관 하야시 타다스에게 보낸 보고서 “동학당 소요는 월래 고부군 민란에서 시작되어 일어난 것으로...정월 10일 부청습격에서 시작되었다.”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있는데 1894년 6월에 출판한 「갑오조선내란시말」 간나미 하야토,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5쪽 “음력 갑오년正月 10일에 한 무리의 폭민이 군수의 성문에 침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부군수 조병갑은 이를 몰래 알아차리고 단신으로 도주하였다.”

「이륙신보」 1894년 6월 10일자 기사 조선의 요란을 보면 1894년正月 10일에 동학당 500여명이 동진의 진두에 열을 이루어 봉기하여 관아의 조병갑 침소를 돌입하게 된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고종시대사 3집」 “지난 1월 10일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민란이 일어나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학이 심하여”라고 나와 있다.

박자 전봉준은 그동안 조병갑 밑에서 농민을 수탈했던 아전(衙前)들을 잡아 조사한 후 벌을 내렸다. 다음 날인 1월 11일 원한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부수었다. 그 날짜와 정황에 대하여 장봉선은 「全瑋準實記」¹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卽 夜에 二路로 分하여 邑內로 向할제 所過處에 竹田을 달하면 竹槍을 製持하였다. 東軒을 襲擊하였으나 乘甲이 不知去處이므로 곳곳이 搜查하였으나 蹤迹이 杳然하였다. 興奮된 群衆은 乘甲의 부하 卽傲吏輩를 一一이 찾았으나 亦是 避身하였으므로 家屋만 顛覆하고 刑獄을 毀破하여 冤囚를 放送한 후 軍器庫를 激波하여 軍器를 所持하고 翌日에 馬項市場에 退屯하였다. 一方으로 萬石湫를 切斷하고 水稅로 積置한 穀物을 糧食에 充用하여 白山城의 築造를 始作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지에는 만석보 파괴 일자가 다음과 같이 잘못 소개되어 있는데 향후 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부민들의 만석보 파괴, 백산성 축조
난민들은 진영을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수차례 회합하여 향후대책을 논의하였고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다.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 주둔한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백산(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全瑋準實記」).

4. 만석보 혁파 선정비(萬石湫 革罷 善政碑)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예동에 있는 비석이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소재지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지방도를 따라가면 우측에

14) 최현식, 1994, 「전봉준실기」,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406쪽.

예동 입구가 나온다. 입구의 예동복지회관 맞은편 광장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비각(碑閣)이 있다.

비각 안에는 2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 우측에 있는 높이 153cm의 화강암비가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제8호인 만석보 혁파 선정비이다. 전면에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 무술구월일(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 戊戌九月日)'이라 새겼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1897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고부 군수 안길수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1898년(고종 35년) 9월에 철거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관의 수탈과 학정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이에 1898년 9월, 농민들은 '군수 안후길수 만석보 혁파 선정비(郡守 安候吉壽 萬石湫 革罷 善政碑)'를 세웠다. 그 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비문(碑文)이 마모되어 판독이 어렵게 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자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하여 비각(碑閣)을 세우게 되었다.



〈도 5〉 만석보 혁파 선정비(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예동)

Ⅲ. 일제강점기의 만석보

1. 만석보의 개축

만석보가 있었던 동진강은 최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뤄졌다. 동진강은 유로연장이 45km로 짧고 하상 경사가 완만하여 물살이 느린데다 조석으로 인하여 해수가 깊숙이 올라와 범람이 잦은 사행천이다. 밀물 때 담수의 수면이 해수에 밀려 높아지므로 이때 뚝을 터놓았다가 썰물 때 뚝을 막아 물을 가둬놓으면 쉽게 관개가 된다.

동진강의 상류이기는 하지만 하상표고가 4~5m인 감조구간 말단부에 있는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필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관개를 하였다. 방조수문(防潮水門)의 기능을 가진 보를 축조하여 하류의 해수를 차단하고 상류의 담수를 관개에 이용했다.

그러나 동진강 유역의 너른 평야는 가뭄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였으며 비가 늦으면 이앙이 늦어져 옥답의 구실을 못하였다. 상시 동진평야를 할거하고 있었던 일본인 대지주들은 매년 가물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리관개시설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에 동진북부수리조합과 동진남부수리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양자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면 모두 용산보를 개량하고 수로를 개수 정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중 동진남부수리조합에서는 광산보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911년에는 이 양자를 통합하여 동진강수리조합으로 재신청하였는데, 이때 주요 공사로 꼽은 것은 용산보를 석조갑문으로 개축하고 강물의 배출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광산보를 철폐한다는 계획이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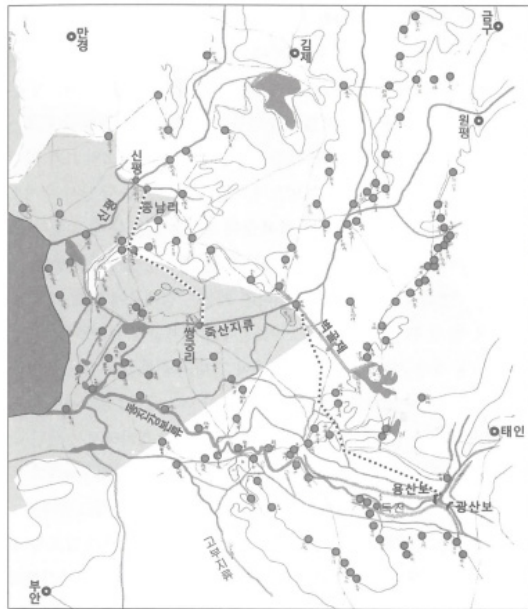
여기서 말한 용산보는 만석보를 말한다. 허수열은 그의 저서 『일제초

15)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55~57쪽.

기 조선의 농업』에서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1911)에서 동진강 부근 일대와 만석보 관련지도를 소개하였는데 지도에서 용산보로 표기된 것이 만석보라고 하였다.

“용산보는 동진강과 정읍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축설된 보로서,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 만석보를 말하는 것이다. 단 고부군수 조병갑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용산보이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광산보라는 명칭으로 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만석보는 동진북부수리조합, 동진남부수리조합, 동진강수리조합 등 이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된 모든 수리조합의 가장 중요한 수원으로 꼽고 있던 보(湫)이기도 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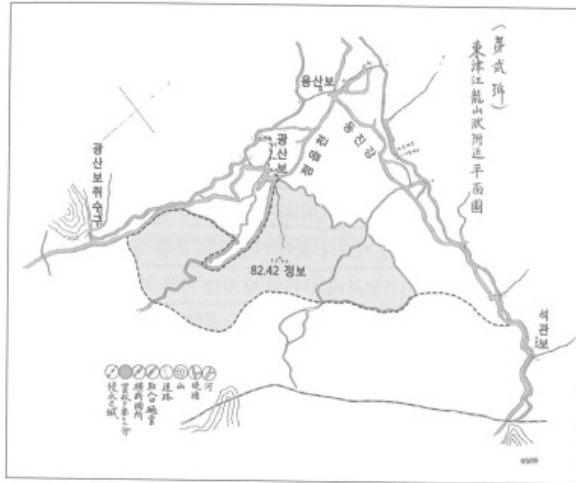
그림2-24 김제·만경평야지역의 수리체계(1910년 무렵)



〈도 6〉 허수열의 위의 책. 55쪽.

16) 허수열의 위의 책, 86쪽, 아래 지도도 허수열의 책에서 재인용함.

그림2-19 동진강 용산보 부근 평면도



자료: MF 90-0741, 509쪽.

〈도 7〉 허수열의 위의 책 86쪽에서 재인용.

『수리에 관한 구관』¹⁷⁾이란 조사자료에서 보(洑)는 강물의 수면과 관개 수전(水田)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 그 구조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상설보(常設洑)는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높은 경우에 이를 설치하는데 대다수가 이 종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대개 돌 또는 나무로써 흐르는 물을 필요한 만큼의 높이로 독을 쌓아 막고, 도랑을 파서 물을 통하게 함으로써 관개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물이 끊이지 않고 보 위쪽으로 넘치기 때문에 매년 터지거나 혹은 수리하여 다시 쌓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동축춘결(冬築春決)의 보는 강물의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낮은 경우로 매년 구력(舊曆) 10월 내지 11월에 강기슭의 높이 이상으로 흙을 쌓아서, 겨울과 봄의 두 계절에는 물을 하천으로부터 부근의 토지

17) 『수리에 관한 구관』(중추원 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로 가득 차게 하였다.

전북 동진강(東津江)의 보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였다. 동진강의 수면은 매우 낮고 강의 양쪽 기슭을 따라 펼쳐진 관개 수전은 점차 용기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에 앞에서 서술한 보를 설치하면, 늦은 봄 모내기를 할 때에는 양쪽 기슭이 한편으로 바다와 같이 물이 출렁거리게 된다.

물은 물두레를 이용해 낮은 지역에서 점차 높은 지역으로 물을 길어 보내게 되는데, 그 노력의 심대함은 대개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모내기가 끝난 후에는 보를 터뜨려 물이 빠지게 하였다. 용산보는 매년 적어도 1회 터뜨렸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봐서 고부 군수 안길수가 1898년(고종 35년) 9월에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남은 만석보를 철거했으나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어느 때인가 다시 보를 보수하여 용산보라 칭하였고 실제로 그 보를 중요 수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제에 빼앗긴 배들평

배들평 농민들의 애환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1920년 5월 30일자 매일신보¹⁸⁾에는 ‘대정오년(1916년) 토지조사령이 실행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측량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기는 일 발생’이라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군청 면소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새로 난 법령을 교묘히 이용 민간에 대한 원한을 사는 일이 한국시대 탐관오리보다 더 흑독한 버르장머리를 하는 일이 종종 없지 않은 바이다. 우선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들건대 전라북도 정읍군 정토면 산북리에 있는 산북평이란 들은 본래 양전옥답으로 수십 년 이래로 정당한 민유지로써 서로 매매하여 오던 증거서류가 소연하며 그 외에도 국세를 납

18)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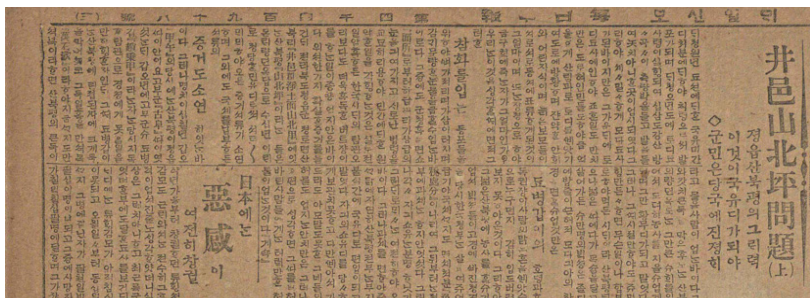
부하던 서류의 증거도 소연하였는 바이다.

그러나 명치 이십 칠년 갑오의 당시에는 산북평이 정을 땅이 아니요 고부군 땅이었는데 갑오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자는 당시 지독한 탐관으로 경성에서 못할 일을 많이 행한 자인데 그대 조병갑이는 산북평에 인접된 땅에 크게 독을 막아놓고 그 독 이름을 만석보라 하여 지금까지도 만석보라하면 산북평의 큰독이라 물을 사람이 없는 바이다.

그와 같이 큰 독을 막은 후에는 산북의 양전옥토는 그만큼 수해를 입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며 그만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 시절만 하여도 힘만 든든하면 무슨 일이나 함부로 하여먹는 시대이라 산북평 넓으나 넓은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수만 명의 백성은 줄지에 밥줄이 끊어져 모두 기아의 참경을 면할 수 없건 만은 조병갑의 흑명과 흑독권장이 사람의 맑은 혼을 빼앗음으로 누구든지 감히 입도 벌려보지 못하여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넓은 산북평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고경에 빠진 정경을 당시 한국정부는 살려주어 급기야 국세까지도 면세처분이 내리어 그 뒤부터는 정부에 과세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각각 자기소유는 분명하니까 그런대로 매매는 여전하여 온 바이다.

그러나 과세를 면하여 준 까닭에 자연히 산북평 전부는 부지불식간에 국유지로 편입이 되고 말았다. 자기 소유지를 당당하게 보관치 못하고 다만 빼앗아가더라도 아무 말도 못할 그네들의 허물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터럭만한 허물이 없는 것이다.



〈도 8〉 1920년 5월 30일자 매일신보

IV. 만석보 유적지의 기념사업

1. 만석보유지비(萬石淤遺址碑) 건립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 1963년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당시 전북일보 기자 이치백이 서울대 역사학과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면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 결과 가람 이병기 선생을 건립위원장으로 선출,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이 뜻대로 이루어지자 정읍을 중심으로 1967년 30여명의 민간인이 모여 최초의 동학관련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기념제 성공에 고무된 사업회의 활동은 만석보유지비 건립으로 이어졌다.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에서 정읍군에 건의하여 1973년 5월 11일에 만석보유지비(萬石淤遺址碑)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석보유지비는 만석보가 있었던 자리로 가는 중간에 세워졌다. 실제 만석보가 있었던 장소로 가려면 비가 있는 곳에서 500여m가량 독길을 더 가야 한다.

그 당시 정부에서 국토 도로변 정비사업 지시가 내려와 만석보유지비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그 정확한 위치를 당시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임원이신 최현식 선생께 고증을 구했다고 한다. 최현식 선생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지정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공사 당일 날 가보니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아

닌 국도 변에 가깝게 자리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중단을 시키고 만석보가 실제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세워야 그 의미가 살지 않겠냐고 설득하여 본래의 자리로 이동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윗분들이 큰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며 공사인부들에게 지시하여 다시 도로 쪽에 가깝게 옮겨 놓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최현식 선생과 공무원들이 서로 몇 십 걸음씩 양보하기로 합의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석보유지비문(萬石湫遺址碑文)

이곳은 갑오동학혁명(甲午東學革命)을 유발(誘發)한 민원(民冤)의 일대표적(一大標的)이 었던 만석보(萬石湫)의 유지(遺址)이다. 당시 고부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은 상류(上流)에 민보(民湫)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강제로 사역(使役)하여 이 보(湫)를 막고 보(湫)의 윗논은 일두락(一斗落)에 이두(二斗), 아랫논은 일두락(一斗落)에 일두식(一斗式), 일찍이 없었던 보세(湫稅)를 받는 등 갖은 폭정(暴政)을 자행(恣行)하였다. 이에 억울한 농민들은 1894년 갑오(甲午) 2월에 전봉준 장군(全琫準 將軍)의 영도(領導) 아래 궤기(蹶起)하여 고부 관아(古阜 官衙)를 습격(襲擊)하고 마침내 만석보(萬石湫)를 훼파(毀破)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동학혁명의 발단(發端)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 유지비(遺址碑)를 세워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하던 선열(先烈)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나아가서는 갑오동학혁명의 대의(大義)를 받들어 길이 기념코자 하는 바이다.

서기 1973년 5월 11일

문학박사(文學博士) 김 상 기(金庠基) 근식(謹識)

건립자(建立者) 정읍군수(井邑郡守) 김삼주(金三柱)

주관(主管) 갑오동학기념사업회(甲午東學記念事業會)

송 성 용(宋成鎬) 전면서(前面書)

서 병 익(徐秉翊) 후면서(後面書)”

전북 정읍시 이평면 33-1에 소재한 만석보터는 지난 1976년 4월 0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됐다.



〈도 9〉 만석보유지비(전북 정읍시 이평면)

2.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

1987년 10월 1일 전라북도가 만석보유지비 왼쪽에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를 세웠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때 널리 유행했던 단어 중 하나가 ‘정화’였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라북도지사 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비가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찾는 답사 객들에 의해 독재정권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정화’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감사격인 전라북도지사가 마치 자기 업적을 드러내듯이 이름을 새겨놓았다 하여 그 이름을 돌로 쪼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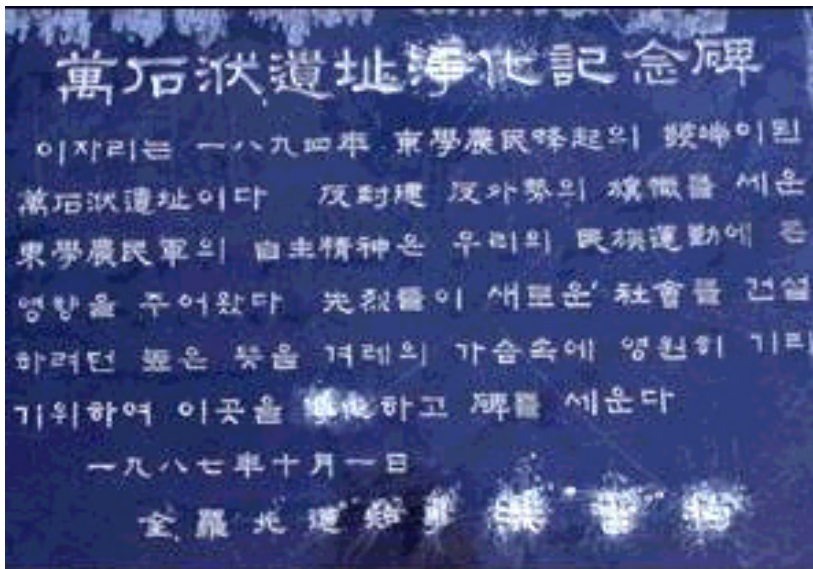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문(萬石湫遺址 淨化 記念碑文)

이 자리는 1894년 동학농민(東學農民) 봉기(蜂起)의 발단(發端)이 된 만석보(萬石湫) 유지(遺址)이다. 반봉건(反封建) 반외세(反外勢)의 기치(旗幟)를 세운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의 자주정신(自主精神)은 우리의 민족운동(民族運動)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선열(先烈)들이 새로운 사회(社會)를 건설하려던 높은 뜻을 겨레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이 곳을 정화(淨化)하고 비(碑)를 세운다.

1987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全羅北道知事) 홍석표(洪哲杓)”



〈도 10〉 답사客들에 의해 돌로 조아진 만석보정화유지비

3. 고부봉기역사맞이곳과 만석보

1967년 12월 정읍에서 최초의 민간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以下 사업회)를 창립하였다. 이듬해인 1968년부터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이하 문화제)를 매년 치러왔다. 그러던 1980년 5월 행사에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제5공화

국 신군부에 의해 제13회 문화제를 끝으로 사업회는 그 해 12월 1일 강제해체 당하였고 문화제 또한 관 주도 행사로 치러지며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한편 1993년 4월 정읍지역의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문화제를 다시 민주도로 환원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조직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1994년 2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여는 첫 행사로 전국민예총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여 ‘고부봉지역사맛이 굿’을 기획하고 정읍천변과 고부와 이평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5백여 명의 놀이패 일꾼들과 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행사기획은 임진택, 총연출은 채희완이 맡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정읍군의 행정적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당시는 정읍의 진보세력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1994년 1월 임진택의 큰형 임성택이 정읍군수로 발령받게 되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1994년 2월 26일 전국에서 모여든 1만 여명의 인파속에서 ‘고부봉지역사맛이 굿’이 성대히 열렸다. 정읍천변에서 길놀이 및 가장행렬 ‘갑오세 가보세’로 시작된 전야제는 개막 열림굿 ‘때가 왔네 때가 와’를 비롯한 마당굿 ‘났네 냈네, 난리가 났어’, ‘칼노래, 칼춤’ 등이 공연되었고 영화「서편제」의 주인공 소리꾼인 김명곤의 판소리와 국악인 공옥진의 춤사위로 신명을 더했으며 민족무예 경당패의 무술 조련 시범 등이 이어졌다.

마무리 '햇불춤' 행사 때에는 모인 시민들에게 햇불을 나누어 주어 깃발과 불꽃이 어우러진 대동 한마당을 이루었다. 공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구석에서는 동학 농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다음날인 2월 27일 아침, 본격적인 역사맛이굿이 벌어졌다. 오전 10시경부터 열렸던 ‘판얼음고사굿’과 전봉준 역할을 한 김명곤의 연설은 단순한 과거 재현이 아닌 현대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 말목장터에서는 '고부 관아 진격 재현굿'이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남녀노소 관객들의 직접참여로 그들 스스로가 곧 동학농민군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행사의 대미는 만석보에서 이뤄졌다. 동학농민군과 시민들은 한데 어울어져 말목장터에서 3km 정도를 걸어 만석보 옆 논에 도착하여 '만석보타파 재현굿'을 가졌다.

논 가운데 짚단을 길게 엮어 만석보를 형상화시켰다. 마침내 전봉준의 호령 끝에 불화살이 만석보를 향해 날아들자 군중들의 함성이 터졌고 이를 신호로 횃불이 곳곳에서 날라들어 만석보를 타파하는 장면은 장관 그 자체였다.



〈도 11〉 고부봉기역사맞이굿(만석보에서)

4. 양성우의 「만석보」 시비(詩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는 홍물이 되었다. 1998년 겨울 당시 정읍시 이평 면장을 뵈고 홍물이 된 이 비를 철거하자고 건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의욕이 컸던 이평 면장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다. “만석보 터에 오면 이곳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조차 없으니 그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밋밋한 표지판 대신 시인이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양성우 씨가 쓴 ‘만석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그 어떤 설명문보다 더 와 닿는 내용이니까 그 시비(詩碑)를 대신 세웠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면장은 당시(1999년 1월)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철거 신청을 했으나 그만 반려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석공에게 ‘만석보 시비’ 제작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이 완성된 상태였다.

원래의 계획은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만석보 시비’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만석보 시비’를 놓을 자리가 없게 돼 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흉물이 된 ‘만석보유지 정화 기념비’는 치우지 못하고 시비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된 것이다.

양성우의 ‘만석보’가 실린 이 시비는 흑돌 3개를 옆으로 붙인 가로 4백67cm 세로 97cm의 직사각형 돌판에 총 1999자의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만석보 시비’는 1999년 4월 18일 이평면민(梨坪面民)의 날에 제막식을 가졌다.



〈도 12〉 만석보 시비(양성우)

5. 만석보유지(萬石湫遺址)와 만석보의 위치

현재 만석보유지비에서 서쪽 백산 방면으로 약 500m 정도 제방 길을 따라가면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3m 정도 크기의 화강암 자연석에 전면에는 한자로 만석보유지(萬石湫遺址)라고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바로 우측에는 기념물 제33호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정읍시 이평면에서 2000년 5월 11일을 기해 건립하였다. 건립목적은 이곳이 과거 만석보가 있었던 곳임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현재 만석보유지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진짜 만석보가 있었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석보유지비만 보고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만석보가 있었던 자리에 표식을 남기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비의 건립위치는 정읍시 이평면 주민인 고(故) 박필훈(1906년생)의 고증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이평면사무소에서 만석보유지 건립업무를 담당한 김경섭(1960년생)은 “건립 당시에 말뚝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나무로 박아놓은 말뚝은 천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이평면 주민 이희청(1950년생)은 “이곳에 부친의 논이 있었는데 부친이 논을 갔다 왔을 때 모친께서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아홉맥이보를 갔다 왔다고 하셔서. 보가 여덟 개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홉 번째 보가 있었던 자리라는 뜻이여. 우리 논이 이 근처 있었기 때문에 아홉맥이보라고 하면 논에 갔다 왔다는 말이지.” 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맥이란 막았다는 뜻이다. 앞에서 나온 「全羅道古阜民亂始初」에서 언급한 구막보(九幕湫, 만석보)가 바로 아홉맥이보를 의미하므로 만석보의 자리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청소년 시절 이곳에서 콘크리트 수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훗날 성장해서 와보니 수문이 사라졌는데 없어지고 말

았다는 것이다. 이 수문은 용산보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근처에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¹⁹⁾라는 보고서에서 만석보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만석보의 위치는 현재 기념물이 조성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현재 유구가 강바닥에 남아 있으며, 1930년대 제작된 5만분의 1지도에 도강소의 위치를 표시하면 박필훈(94세) 노인의 녹음증언과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김경섭이 증언한 말뚝이 2004년 현지조사 당시에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남아 있다는 말뚝과 콘크리트 수문 등의 유구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정읍시와 관련 연구원들이 당시 정읍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용역 연구원 연석회의(2004.1.7.)’자료²⁰⁾에서 만석보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회의내용(고증에 관한 사항 : 만석보의 위치)

- 1974년 위치 지정 당시 예동 박형규 노인과 함께 정했는데 다만 독 아래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그러나 2km 정도는 아닌 것 같다.
- 박노인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를 막은 돌이 있었다고 했으나 그 후 독을 막으면서 그 돌을 써 버린 걸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만석보의 위치는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9) 정읍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27쪽.

20) 위의 책.



〈도 13〉 만석보유지(전북 정읍시 이평면)

6. 만석보 쉼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5월 8일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인 만석보 쉼터의 조성을 하였다. 만석보 쉼터는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언덕을 쌓아 조성했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친수형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했다. 만석보 쉼터 정상에 오르면 만석보터는 물론 백산, 황토현 등의 유적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도 14〉 만석보 뚝에서 내려다본 동진강

V. 만석보 유적지의 향후 정비방안

1. 만석보 유적지의 상징성

만석보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94년 부패와 수탈 등 불의에 항거한 민초들의 저항정신은 만석보의 파괴라는 상징적 행위로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9월 고부농민들은 고부군수 안길수에게 압박을 가해 남아있던 만석보마저 훼파시켰다. 이는 단순한 보의 헐파라기 보다는 관의 부당한 수탈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낸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만석보는 조선후기 부패한 봉건정부가 벌린 수탈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석보가 지니는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은 문학작품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특히 만석보가 지닌 이러한 상징성은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도 구현되어왔다. 2023년 8월 10일자 한국농정신문²¹⁾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쌀값 보장』 죽창 들고 나락 불태우다」지난 2023년 7월 28일 오전 전북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터에서 열린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논 갈아엎기 투쟁’에서 콤바인이 일부 수확한 벼를 논에 쏟아내는 가운데 농민들이 미처 갈아엎지 못한 벼를 불태우고 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땅의 농민들이 질곡의 세월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아픔은 130여 년 전이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저항정신이 만석보 유적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만석보가 담고 있는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날 우리의 현실의 삶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 15〉 2023년 8월 10일자 한국농정신문

21)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2. 만석보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방안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지(萬石湫址)의 위치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33-1 일원으로 되어있다. 전라북도 기념물은 지방기념물 중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만석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도지정문화재를 넘어 국가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향후 사적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다. 국가 사적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²²⁾

-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 수행방식 : 직접수행
-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22) 문화재청(<https://www.cha.go.kr>)

- 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청 자료를 해당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에 따라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검토 의견서, 심의자료, 도면, 학술, 고증자료, 사진, 위치, 지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관련한 범위 지정, 토지이용계획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지정문화재(기념물)인 만석보지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한다면 지정에 필요한 문헌조사, 발굴조사, 학술대회라는 3요소가 필수적이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이뤄지고 말뚝 등 당시의 유구가 발견되면 사적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장흥석대들전적지(長興石臺들戰蹟地)나 고창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의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9월 16일 사적으로 지정된 울산 약사동 제방(蔚山 藥泗洞 堤防)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필자는 만석보에 대한 관련 사료와 연구자들의 견해를 통해 당시 광산보와 만석보 등 2개의 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봉준공초』를 제시하였다.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의 증

언이야말로 어느 사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봉준이 공초에서 언급한 민보는 광산보를 의미하며 그 민보 아래에 보를 조병갑이 쌓았다고 하였다. 광산보는 ‘군수 김우현 홀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에 언급된 것처럼 1718년에 시축되어 농민들이 사용해 왔으며 나머지 신보인 만석보는 조병갑의 지시에 의해 1893년에 축조된 것이다.

1894년 4월에 전라감영에서 작성한 보고서인 『全羅道古阜民亂始初』과 현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만석보의 위치 또한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는 자리보다는 현재 ‘만석보유지’가 세워져 있는 자리가 더 유력하며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석보가 위치한 동진강변은 풍요의 상징이자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다. 1894년 1월 11일 만석보의 파괴는 단순히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패와 수탈에 대한 표출이 아니라 한양으로 진격하여 조선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발발 130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만석보의 위치와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정읍시에서 만석보 종합정비사업을 수립하여 동학농민혁명 주요 핵심 유적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희망을 가져본다.

향후 본격적인 학술연구와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만석보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널리 드러나게 되길 바란다. 끝으로 만석보유적지가 도지정문화재를 넘어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투고일 : 2024. 3. 2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동도문변」,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공초」, 2014,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단행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이평면백년사』, 이평면지편찬위원회.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瑋準』, 同學出版社.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_____, 2020,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기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e-donghak.or.k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수리에관한구관』(중추원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

〈Abstract〉

Transformation Process of Manseokbo and Current Status of Commemoration Projects

Cho Kwoang Hwan*

Manseokbo, a repair facility located in Ipyeong-myeon, Jeongeup-si, Jeollabuk-do,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historical value as a facility that pulled the first fu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On January 10, 1894, farmers who were angry at Jo Byeong-gap's tyranny finally attacked Gobu Gwana and destroyed Manseokbo, a symbol of exploitation and object of resentment the next day.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hn Gil-soo, the governor of Gobu demolished the remaining Manseokbo in September 1898, which had been partially destroyed and left unattended to soothe public sentiment.

In this historical site where Manseokbo was located after liberation, there are "Manseokbo Maintenance Monument" built in 1973 by the Gabo Donghak Revolution Memorial Project and "Manseokbo Maintenance and Purification Monument" built in 1987. On the opposite side is Yang Seong-woo's Monument to Manseokbo, which was built in 1999.

Currently, if you follow the embankment road about 500m from the Manseok Maintenance Monument to Baeksan Mountain in the west, there is a Manseok Maintenance Monument built by Jeongeup-si on May

* Director of Donghak History Culture Research Institute

11, 2000.

The ninth act here is related historical materials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villagers that the place where the reservoir was located. Since Gumakbo mentioned in the book means nine maekib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ite of Manseokbo is here.

Therefore, the controversial location of Manseokbo is more likely and valid than the location where the current Manseokbo is built than the location where the Manseokbo Maintenance Monument and the Manseokbo Purification Monument are located.

Key word : Manseokbo, Gobu, Cho Byung-kap, Donghak Peasant Revolution, Jeon Bong-jun